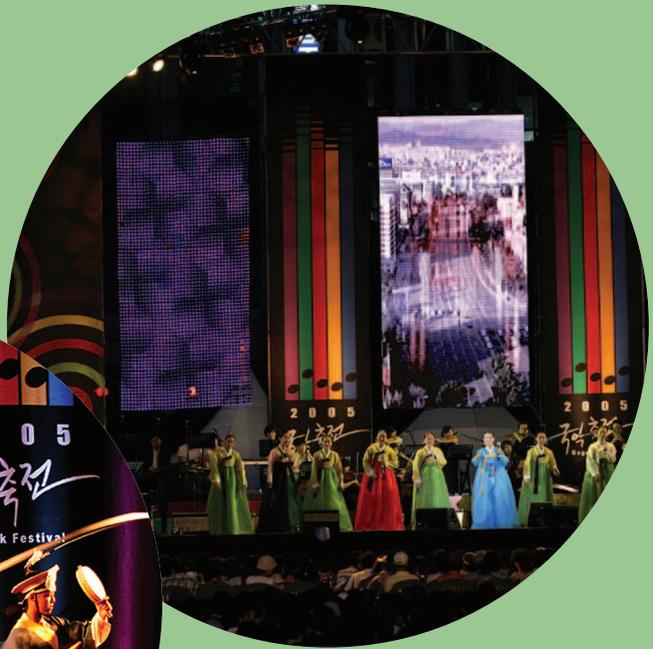


# 사물과 나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축제의 장

현경채 | 음악평론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개막공연

◀광주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태평소와 사물놀이

▼부산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의 그룹 그림 연주장면

제2회 국악축제 <2005 국악축전>이 '종횡무진 우리 음악'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신 못 차릴 만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젊은 감각이 살아 있는 이번 축제는 이 땅의 다양한 음악과 어울리고, 멀리 아시아를 품고, 세계로 큰 발을 내딛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1개 도시에  
서 열린 <2005 국악축전>은 지난해에 이  
어 2회째를 맞는 국악축제로 슬로건은 '중흥  
무진 우리음악'이다. 보다 젊어진 국악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국악축전에는 순수 국악이나  
국악 퓨전만이 아니라 대중음악·미술·영화  
·춤·퍼포먼스 등 주변 문화장르와 국악과  
의 만남이 시도되었다.

우리음악인 국악이 중흥무진 주변 문화장  
르와 만나게 된 이번 축제에서 가장 큰 역할  
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음악평론가 윤중강  
이다. 이번 축제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윤  
중강은 문화계의 마당발로 영화와 대중음악,  
미술계, 언론계 등 다방면의 인맥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폭넓은 인맥이 이번 축전에 고스  
란히 활용되었다.

고려시대 문인 이자현(李資玄, 1061~  
1125)의 글 중에 “조악재어심림(鳥樂在於深  
林), 어악재어심수(魚樂在於深水)”라는 멋진  
부분이 있다. ‘새의 즐거움은 깊은 숲속에 있  
고, 물고기의 즐거움은 깊은 물에 있다’는 뜻  
으로 번역되는 이 글을 읽으며 새삼스럽게  
<2005 국악축전>의 예술감독으로 생애 최고  
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윤중  
강의 얼굴이 오버랩 되었다. “나를 제발 내버  
려 두어다오. 숲속에서 마음껏 노래하는 새처  
럼, 물 속에서 뛰노는 물고기처럼 바쁘게 살  
고 싶소이다.”

#### 사물과 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축제의 장

이번 축전에는 ‘국악의 대  
중화’를 넘어서 ‘대중음악의  
국악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기획의  
도가 담겨져 있다. 젊은 감각의 국악을 표방  
한 이 축제는 전통과 창작을 나란히 세우고  
국악과 양악,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여기저기  
서 다채로운 난장을 벌였다. 청담동 클럽에서  
국악파티를 여는가 하면, 힙합과 시조풍의 정  
가가 만난 음악이 등장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명인들부터 인디밴드까지 두루 참여하며, 장  
르 허물기와 벽 허물기를 시도하였다. 정신  
못 차릴 만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젊은 감각  
이 살아 있는 색다른 시도는 경직되어 있는  
국악인들에게는 낯선 일탈처럼 보지만, 한편  
으로는 딱딱하게 굳은 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활력으로 젊은 피를 뜨겁게 한 것은 사실이  
다.

하나의 익숙한 소리가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와 내 몸을 흔들고, 그것이 다시 많은 사  
람들에게 옮겨지는 아름다운 감염 경로의 현  
장이 바로 <2005년 국악축전>이다. 사물과 나  
사이에 가로 놓인 장벽이 무너진다. 내가 네  
가 되고, 네가 내가 된다. 아무 거칠 것 없이 통  
쾌하다.

#### 차린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축제

예산규모나 출연진, 관객 등 모두 최다를 자  
랑한 이번 축전에는 무려 2,500여 명의 출연  
진이 참여했다. 매 공연마다 매진 사례를 보  
였으며, 조직위원회와 사무국 직원들은 일단  
관객이 즐거워했다는 점에서 안도의 숨을 내

〈2005 국악축전〉에는 ‘국악의 대중화’를 넘어서 ‘대중음악의 국악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기획의도가 담겨져 있다. 젊은 감각의 국악을 표방한 이 축제는 전통과 창작을 나란히 세우고 국악과 양악,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여기저기서 다채로운 난장을 벌였다.

쉬었다. 지난해보다 대중음악인의 참여가 훨씬 많아졌다는 따끔한 지적이 있었지만, 처음에 밝힌 ‘국악의 대중화’를 넘어서 ‘대중음악의 국악화’를 이루겠다는 축전의 기획의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점이 용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차린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이번 축전은 9월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의 개막공연 〈國樂? Gugak!〉을 시작으로 열 두 차례의 국내공연과 두 차례의 사할린과 베트남 해외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악만화책, 국악에 니메이션 DVD, 대중음악가수들과 피아니스트 박종훈에게 의뢰해서 제작된 12곡의 음악이 담겨 있는 공식음반도 만들어졌다.

개막공연에서 만난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이춘희(경기민요) 명창, 〈그녀들과 앞서가다〉가 공연된 오산 음악회에서의 조순자(여창가곡,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명인, 폐막공연

에서의 안숙선 명창, 청담동 클럽에서 만난 황병기(가야금) 명인의 침향무를 비롯하여 인순이, 박화요비, 한영애, 정재일, SG워너비 등 대중음악의 스타들, 그리고 젊은 국악인들까지 〈2005 국악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총동원되었다. 이번에 참여한 음악인들은 국악계의 스타, 젊은 국악 그룹뿐만 아니라 인접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며, 그들과의 국악작업은 우리음악에 대해 열려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번 국악축전은 대중들과 국악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수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는 볼거리에 품격을 더하기 위해서 월드뮤직 평론가, 국악방송 PD, 무용평론가, 국악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주제로 판을 짜고 음악에 미술·영화·춤·퍼포먼스 등을 연결해

왼쪽 · 서울 클럽 AQUA에서 열린 클래식파이의 공연  
오른쪽 · 서울 퍼포밍아트홀에서 열린 창작국악경연대회



공감각적 무대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버라이어티의 극치를 이루며 종합선물 세트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넘어 대중음악의 국악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대중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뮤지션들과 함께 <2005 국악축전>의 첫 장을 연 개막공연에서는 움직임의 형상화하는 '힘' 과 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얼', 춤을 표상하는 '뗏', 그리고 이제 세계로 나아가 화합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는 '홍'이라는 4개의 테마가 무대위에 펼쳐졌다. 방송국의 공개음악회를 방불케 한 개막공연은 서울의 중심인 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인간문화재 이춘희 명창, MC몽, 타악그룹 공명 등의 음악인이 참여한 가운데 시끌벅적한 평음으로 시작되었다.

개막제가 열린 시청 앞을 포함하여 서울과 고양·평촌·오산·안산 등 수도권에 최근 문을 연 극장과 서울 압구정동의 클럽, 그리고 6개 지방 대학 캠퍼스가 축제의 마당이였다. <사람, 악기가 되다>(고양, 어울림극장), <그녀들과 앞서가다>(경기, 오산문화예회관), <사랑하면 부딪쳐라>(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Over the Moon, Into the Gugak>(서울, 클럽 AGUA), <국악, 세계를 댄다>(춘천, 강원대 백령문화관), <장단, 몸으로 스며들다>(대전, 충남대 정심화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여 각기 다른 특징과 내용으로 관객을 유혹했다.

**프로그래머 중의 그랑프리, 최효민 국악방송 PD**



고양 어울림극장에서의 <사람, 악기가 되다> 공연은 목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한 음악회이다. 신이 세상에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이다. 사람이 표현해낼 수 있는 소리의 세계는 경이로울 만큼 다채롭고 듣는 이를 한없이 편하게 만들어준다. 사람이 악기가 되어 연주한 우리음악이 다채롭게 구성된 이 음악회에는 나운선, 조주선, 김용우와 더솔리스트, 남양주시립합창단이 출연하여 '목소리' 라는 최상의 악기로 한 국음악을 선보였다. 하지만 스킷송의 창법으로 꾸며진 나운선의 무대에서는 그녀 특유의 장점을 만날 수 없었으며, 합창단의 익숙하지 않은 발성법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경기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열린 <같은 시대 이방인> 브레이크 댄스 vs 판국

9월 6일의 공연 <〔畵〕 소리, 그림이 되다 (Musicotherapy Performance)>(안양 평촌 아트홀)는 옛 음악과 악기를 통한 즐거운 상상충전의 공연이었다. 단원 김홍도(1745~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서 단원 김홍도를 만나 그림 속의 주인공 “생황 부는 아이”를 현재로 불러낸 감쪽한 발상의 주인공 최효민을 <2005 국악축전> 프로그래머 중의 그랑프리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소리, 그림이 되다>는 이번 축제중의 백미였다.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공연된  
물속을 걷는 달

1806?)의 그림 <선동취생도(仙童吹笙圖)>의 인물인 “생황부는 아이”를 그림 밖으로 불러내어 그와 함께 소리 찾기 여정을 그린 이미지 퍼포먼스였다.

서울 양화진의 선유봉(지금의 선유도 공원)에서 신선의 시중을 들던 아이는 몰래 생황을 훔쳐 달아나는데, 그의 여행길은 재해석된 우아한 옛 음악과 단원의 다른 그림들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다도(茶道) 퍼포먼스로 표현되었다. “생황부는 아이”가 21세기의 서울에서 옛 집터였던 선유도 공원을 찾아가서 상처를 치유해가며 소리를 찾는 과정은 작은 영화 <나루>와 이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오리지널 스킷의 라이브 연주로 재현된 독특한 음악회

를 통해 이번 축제에서 만날 수 있었다. 생황, 단소, 양금으로 연주된 수룡음과 현천수가 있었으며, 여창가곡과 시조창, 가야금산조 등의 음악은 단원의 그림 속에서 느껴지던 신비스러움과 탈속의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서 단원 김홍도를 만나 그림 속의 주인공인 “생황 부는 아이”를 현재로 불러낸 감쪽한 발상의 주인공 최효민을 <2005 국악축전> 프로그래머 중의 그랑프리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9월 8일 안양(평촌아트홀)에서의 공연, <소리, 그림이 되다>는 이번 축제중의 백미이다.

9월 13일 공연 <[女] 그녀.들.과... 앞서.

가.다!(Woman Power Concert))(경기 오산 문화예술회관)는 21세기는 '우먼파워'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한 음악회이다. 이제 우먼파워의 확대는 세계적,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매력적인 그녀들의 열정으로 오산무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은일, 허윤정, 유경화로 구성된 상상트리오의 음악과 가야금 반주에 황성옛터를 멋들어지게 부른 한영애의 무대를 보면서 무당이 따로 없다는 표현이 떠올랐다. 오산 공연에서의 압권은 판소리로 음악극을 선보인 '타루'의 <구지가(球地歌)>이다. 타루는 소리꾼 이자람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고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 판소리와 연극, 전통과 현대의 음악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

다. 여자와 남자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지구(地球)를 뒤집은 <구지가>는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이다. 지구의 정반대 행성을 등장시켜서 현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여성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전개한 창작 판소리라는 점에서, 그리고 젊은 판소리꾼의 창작이라는 점과 그들이 판소리를 음악극으로 그들이 직접 출연하고 노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며, 관객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 프로그램이 바로 <구지가>이다.

9월 30일 <2005 국악축전> 폐막공연 <樂 GUGAK? 國樂!>(서울, 올림픽홀)은 <2005 국악축전>의 마당을 여밈으로써 이제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다. 정재국 명인의 대취타 음악으로 무대를 열었으며, 몽골 후미와 몽골



왼쪽 · 경기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칠성굿  
오른쪽 · 경기 안양 평촌아트홀에서 열린 보태니컬테라피 퍼포먼스



경기 고양 어울림극장에서 열린 전통타악작그룹 공상의 구름사물놀이

오른쪽 페이지  
왼쪽 ·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의 공연장면 (연주: 오르  
케스타 코바나)  
오른쪽 · 경북 경주 동  
국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의 2005 국악축전 공식  
음악 주관이시여 연주  
장면

보긴 도(단가 短歌)를 비롯하여, 신재철의 'Rush to the battlefield' (2005 국악축전 공식음악), 정재일의 'Guess What I'm Looking For' (2005 국악축전 공식음악)과 타악그룹 공명의 새로운 전자장구 음악 'Sand Paper 21' 등은 대중들 앞에 성큼 다가선 한국음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음악이다.

#### 각계각층의 문화인들이 참여했지만……

〈2005 국악축전〉은 이 땅의 다양한 음악과 어울리고, 멀리 아시아를 품고, 세계로 큰 발을 내딛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국악축전은 많은 사람이 참여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악인이나 평론가 혹은 국악축전 관계자들의 시각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 국악축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퓨전'은 아직 국악을 대표하는 대표선수가 될 수 없다. 퓨전 국악이 언젠가는 국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

둘째, 국악축전의 주인공은 국악인이 아니라 대중과 대중음악이었다. 국악이 풀어야

할 숙제는 국악의 현대화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숙제의 방향이 국악의 대중화가 되어 버린 기현상이 나타났다. 국악의 대중화도 좋지만 대중음악을 반주하는 음악인으로 무대에 오른 국악계의 스타급 연주자를 보는 국악인들은 아무래도 입맛이 씹쓸했을 것이다. 명인명창을 초대했으면 그들만의 멋진 국악의 진수를 보여 주어야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국악축전의 공연 시간이 너무 길었다. 아이디어가 많은 예술 감독 덕분일까? 매 공연이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였다. 담아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보여 주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은 알겠지만, 공연은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다. 9월 13일 공연 〈[女] 그.녀.들.과... 앞.서.가.다!〉(경기, 오산문화예술회관)에 출연한 이혜경 만신의 무대를 보려고 필자는 3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완성도가 높은 출연진의 감동적인 음악도 장시간 객석에 꼼짝없이 앉아 감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인 듯싶다.

그 외에도 〈2005 국악축전〉을 준비한 조직 위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쓴 소리



는 아껴두었다가 따로 마련된 공청회에서 하  
려고 한다. 관객들과 만난 본격적인 행사는 1  
개월 남짓이었지만,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며 엄청난 규모의 행사를 큰 사  
고 없이 끝낸 많은 음악인들과 스텝들의 노  
고를 치하한다. 마지막으로, 앞부분에 인용  
한 고려시대의 문인 이자현의 글이 현대인들  
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앞에서 인용한  
내용을 제외한 그 다음을 옮겨 적어 보았다.

물고기가 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새까지 깊은 못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새가 숲을 사랑함을 가지고  
물고기마저 깊은 숲으로 옮겨서도 안 된다.

새로써 새를 길러 숲속의 즐거움에 내맡겨두고,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를 알아  
강호의 즐거움을 제멋대로 하도록 놓아두어,  
한 물건이라도 있어야 할 곳을 잃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이 제각기 마땅함을 얻도록 해야 한다.  
鳥樂在於深林, 魚樂在於深水. 不可以魚之愛水, 徙  
鳥於深淵, 不可以鳥之愛林, 徙魚於深藪.  
조락재어심림, 어락재어심수. 불가이어지에수, 사  
조어심연, 불가이조지에림, 사어어심수

以鳥養鳥, 任之於林藪之娛, 觀魚知魚, 縱之於江湖  
之樂, 使一物不失其所, 群情各得其宜.

이조양조, 임지어림수지오, 관어지어, 종지어강호  
지락, 사이물불실기소, 군정각득기의